

비만과 전립선 용적과의 연관성

민흥기, 이상엽, 안성률, 김영주, 최상한, 김운진

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

연구배경: 최근 비만 관련 대사질환이 전립선 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. 본 연구에서는 비만과 동반된 대사질환이 없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경직장 초음파 검사로 전립선 용적을 측정하여 비만 자체와 전립선 용적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: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부산의 일개 3차 병원을 방문하여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받은 40세 이상의 남성 중 당뇨병 및 내장능 장애, 고혈압, 고지혈증과 같은 비만 관련 대사질환을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135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.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18.5 kg/m² 이상~23 kg/m² 미만, 23 kg/m² 이상~25 kg/m² 미만, 25 kg/m² 이상을 각각 정상군(47명, 34.8%), 과체중군(33명, 24.4%), 비만군(55명, 40.8%)으로 분류하고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각 군의 전립선 용적과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. 또한 복부둘레를 기준으로 90 cm 미만, 90 cm 이상을 각각 복부정상군(109명, 80.7%), 복부비만군(26명, 19.3%)으로 분류하고 t검정을 이용하여 양군의 전립선 용적과 혈청 총 테스토스테론 농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.

결과: 비만군의 평균 전립선 용적은 21.49±5.48 cc로 정상군의 18.49±4.97 cc에 비해 유의하게 컸으며(P=0.039), 비만군의 평균 총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4.88±1.48 pg/ml로 정상군의 6.42±2.13 pg/ml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(P=0.03). 복부비만군의 평균 전립선 용적은 23.02±5.19 cc로 복부정상군의 19.74±6.01 cc에 비해 유의하게 컸으며(P=0.011), 복부비만군의 평균 혈청 총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4.91±1.28 pg/ml로 복부정상군의 5.76±1.85 pg/ml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(P=0.027).

결론: 비만 관련 대사질환을 제외한 본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와 복부둘레 기준 모두에서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평균 전립선 용적이 유의하게 컸다. 이에 비만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.

중심단어: 비만, 남성, 전립선 용적, 전립선 비대,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